

인 도 : 가족 중

조용한기도	다 같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여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찬 송	‘나의 갈길 다가도록’ (384장) 1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안에 있는 금홍 어찌 의심하리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2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니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니 3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때에 영영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대표기도	가족 중 ‘시편 25편 12-14절’
성경봉독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여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설 교	[여호와를 경외할 때]
가족기도	-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 조상(부모)의 가르침을 기억하는 삶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 가족의 기도제목을 나누고 기도합니다. - 코로나로 좌절하지 않고 전염병을 이겨내도록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다 같 이

말씀 - 여호와를 경외할 때

2021년 설 명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한 해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외(敬畏)**의 뜻은 ‘공경하면서 두려워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며 거룩한 두려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복을 주십니다.

1.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12절)

12절 말씀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가 택할 길을 가르쳐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선택의 연속으로 이루어집니다. 선택에 따른 결과는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택은 어렵고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혼자 고민하거나, 지인들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심지어는 무당이나 점집에 찾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좋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기도 중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택할 길을 안내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 모두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2. 평안을 누리는 복을 받습니다.(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또 하나의 복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질적 부요나,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으로 오는 평안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들로는 도저히 채워질 수 없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 공간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에 모실 때에만 채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통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2021년 우리 가족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올 한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다른 어느 때보다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 언약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14절)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보이십니다. **언약(言約)**이란 ‘말로 약속하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맺으시고 장차 그의 후손 가운데 다윗의 집과 나라를 영원히 지켜주시고 견고히 하실 그리스도가 나실 것임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때에 다윗과 같은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고 영원합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사는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가족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 설교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 모두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서 화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상황 속에서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
날
로
가
정
예
배
서